

# 한글의 숨은 역사를 발견하는 기쁨

## 한글가온길

10월 9일 한글날이 올해로 제578돌을 맞이한다. ‘한글가온길’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 세종로에 조성한 거리다. ‘가온’은 ‘중심’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한글이 우리 삶과 역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글 박희수 사진 조재은

### 도심 한가운데서 만나는 한글의 숨결

한글가온길을 따라 걸으며 한글의 역사를 되짚어 본다. 한글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다 보면,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과 혼이 깃든 소중한 유산임을 깨닫는다. 광화문광장에 자리 잡은 ‘세종대왕 동상’은 2009년 10월 9일 한글날에 맞춰 설치되었다. 세종대왕 동상의 왼손에는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훈민정음해례본》이 들려 있다. 해례본은 훈민정음의 문자 체계를 설명하

기 위해 만든 것으로, 한글 해설서 역할을 한다.

동상 바로 뒤편의 ‘세종이야기’ 지상 입구로 들어서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야기를 주제로 한 전시가 펼쳐진다. 세종대왕 동상 설치와 함께 개관한 이곳은 인간 세종, 민본사상, 한글 창제, 과학과 예술, 군사정책, 한글도서관 등 총 6개의 전시 공간으로 구성돼 한글의 우수성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다. 세종대왕의 삶과 업적에 관한 이야기를 더욱 깊이 듣고 싶다면 도슨트 예약을 추천한다.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공원에 자리한 한글 글자 마당도



세종대왕



눈에 띈다. 이곳에는 한글의 초성(19자), 중성(21자), 종성(28자)을 조합한 11,172자가 새겨진 사각형 돌들이 배치되어 있다. 돌 위에는 시민, 재외동포, 국내 거주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각계각층의 11,172명이 직접 쓴 캘리그래피가 새겨져 있어 다채로운 한글의 얼굴을 만날 수 있다.

마당 안쪽을 바라보면 10m 높이의 청동과 흑요암으로 만들어진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이 서 있다. 이 탑은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 말과 글을 지켰던 애국선열 33인을 기리고 있다. 이들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고통을 겪은 인물들로, 1942년 일제가 한글을 연구하는 조선어학회 회원, 관련된 인물들을 강제로 연행했던 사건이다. 이곳에서 서서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되새기며 한글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느껴 보자.



### 우리말과 우리글에 담긴 우리 민족의 얼

한글가온길 곳곳에는 주시경 선생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주시경 선생은 한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로 한글 연구와 보급에 평생을 바친 국어학자이자, 일제강점기 우리 말을 지키는 데 앞장선 독립운동가이다. 한글의 체계적 연구와 현대적 문법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조선어학회의 뿌리가 된 국어연구학회를 만들었다. 그는 1912년에 발표한 저서 《소리갈》에서 '한글'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한글'은 '으뜸가는 글이자 하나밖에 없는 글'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국어 문법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체계를 최초로 정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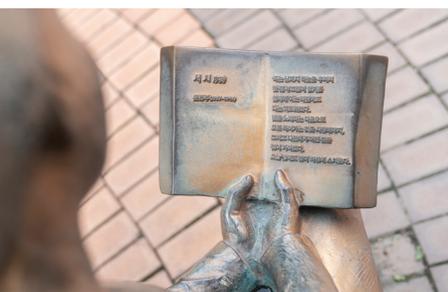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주시경 마당에는 주시경 선생과 그의 스승 험버트 박사의 부조상이 놓여있다. 호머 험버트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육영공원 영어 교사이자 고종의 외교 자문이었으며, 주시경 선생에게 서양 학문을 가르쳤다. 또한 최초의 한글 교과서 《사민필지》를 만들고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벽화 바로 맞은편에는 고전적인 적색 건물, 한글회관이 있다. 정문에는 주시경 선생의 흉상이 자리한다. 한글회관은 한글학회의 본부로 한글의 연구와 보급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창립 116돌을



**한글가온길**

📍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58-51



맛이한 한글학회는 1908년,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은 지식인들에 의해 창립된 학술단체로, 주시경, 김정진 선생 등 당대의 지식인들이 뜻을 모아 설립했다. 한글회관 건물 뒤편에는 ‘나는 한글이다’라는 문장 조형물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며 구조적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한글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이곳은 단순한 학술 공간을 넘어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뜻깊은 의미를 지닌다. 조선어연구회(현 한글학회)는 1926년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반포 일을 기념해 ‘가갸날’을 제정했고, 1928년에 이를 ‘한글날’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한글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한글가온길은 한글 창제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